



농촌진흥청(주)누보 '원팀' 브라질 초대형 농자재 시장 뚫었다

- 한국(누보)-브라질(에코아), 공동 연구 계약 체결, 국제 식량작물 시장 겨냥
- 5월 농촌진흥청 민관 협력단 브라질 방문 계기로 협력 본격화
- 영문 우량비료 지정 확인서 발급 등 적극 행정 뒷받침
- 완효성 코팅비료 '하이코트' 중심...기능성 비료 검사 및 상업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세계적 그린 바이오기업 (주)누보(대표이사 김창균, 이경원)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주)누보는 브라질의 바이오 농업 선도 기업 'Ekoa Life Sciences(EKOA, 에코아)'와 콩·옥수수 대상 고효율 비료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C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세계 1위 콩 생산국이자 주요 옥수수 수출국이다. 두 작물 재배 면적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7배(약 6,900만 헥타르)에 이른다.

이번 성과는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가 실제 기업의 수출 기회로 이어진 민관 협력의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농촌진흥청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5월 국내 기업들과 '민관 협력단'을 구성해 브라질 현지와의 교류를 이끌었다. (주)누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우량비료 지정 확인서를 신속 발급하는 등 전방위적 적극 행정으로 계약 체결을 적극 뒷받침했다.

(주)누보는 브라질에서 에코아와 협력 논의를 시작해 이번 공동 연구 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농촌진흥청에서 발급한 영문 우량비료 지정 확인서를 통해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공동 연구 계약 체결로 (주)누보는 완효성 코팅비료 ‘하이코트(HI-COTE)’와 무인기(드론)용 비료 등을 공급하고, 에코아는 미생물 접종제(BNF inoculants) 등 생물학적 제제 기술과 현지 유통망을 제공한다.

또한, (주)누보 비료와 에코아 미생물 제제 간 코팅 제형화 타당성을 검증하고 콩·옥수수를 대상으로 시험, 브라질 제품 등록을 거쳐 상업 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채소나 과수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내 비료 산업이 해외 식량작물 시장으로 진출 영역을 대폭 확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주)누보 김창균, 이경원 대표는 “농촌진흥청의 현지 연결망(네트워크)과 행정 지원이 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큰 힘이 됐다.”라며 “완효성 코팅비료는 브라질 주요 작물 콩과 옥수수 재배 과정에서 노동력을 줄여줄 뿐 아니라 환경 부담을 낮추는데 가장 이상적인 농자재이다. 에코아와의 긴밀한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유지하고 현지 농장 실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남미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중 과장은 “브라질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시장이다.”라며 “정상회담 약속이 기업의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이번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현지 수요 발굴부터 인허가, 비즈니스 계약까지 기업과 한 팀이 되어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민관 협력단 브라질 방문 및 협력 추진 결과

담당 부서	연정국 농자재 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오중 (063-238-0820)
		담당자	사무관	김영림 (063-238-0830)
		담당자	연구사	박수진 (063-238-0843)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참고

민관 협력단 브라질 방문 및 협력 추진 결과

□ 개요

- 목적: ① 한-브라질 농약등록기준 표준화 협력 심포지엄 개최(G2G)
② 국내 우수농자재 브라질 진출 지원을 위한 B2B 미팅 추진
- 일시: 2026년 5월 19일 ~ 5월 20일
- 장소: 브라질 농업축산부(MAPA)

□ 참석자

- (정 부 기 관) RDA-MAPA·ANVISA·IBAMA 농약 등록·평가 관계자 15명
 - (MAPA) 농약등록 총괄과장, 농약 제품등록 과장, (ANVISA) 독성평가 과장, 동등성평가 팀장, 독성담당자, (IBAMA) 환경분석관 등 10명
 - (RDA) 농산물안전성부장, 농자재산업과장, 평가담당자 등 5명
- (한·브라질 농산업계 ^{농약·비료} 기업) 한국 5개사, 브라질 14개사 27명

□ 추진 결과

- 한-브라질 농약등록기준 표준화 협력 심포지엄 개최(G2G)
 - 양국 농약 등록·평가 기준(등록관리·이화학·약효약해·독성·환경생태독성·잔류) 상호 표준화 방안 논의
- 한국 기업, 브라질 진출을 위한 양국 농산업계 B2B 협력추진
 - (누보) EKOА MOU체결 추진, Fertiliza Chemical MOU체결 협의(6월) 등

□ (주) 누보 브라질 수출 제품 정보

- **완효성 비료** * 수확량: 옥수수 16.29%, 콩과작물 13.81% 증가
 - 작물의 성장곡선에 맞춰 비료 성분의 용출 기간을 조절하는 기술
 - 단 1회 비료주기로, 작물 수확기까지 필요한 영양 안정적 공급
 - ☞ 과다 비료사용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 * 일반비료에 비해 사용량 88%, 휘수 75%절감, 온실가스 67% 토양오염 89.7%경감
- **글로벌 전략**: 미국, 중국 지사를 거점으로 미국 등 30여국 수출 중
- ※ **2026.9. 브라질 에코아(EKOА)와 공동연구계약(CRA) 체결**